

GGM 캐스퍼·기아 스포티지 영국서 흥행 질주

현대차·기아, 6월 최초 월별 판매 순위 5위권 내 동시 진입 광주 생산 전기차 캐스퍼 출시 한달도 안돼 1127대 판매 기록

현대자동차·기아가 유럽 자동차 강국인 영국에서 동시에 6월 최초 월별 판매 순위 5위권 내에 이름을 올리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특히 광주에서 생산하는 현대차의 캐스퍼 일렉트릭(현지명 인스터)은 영국 출시 한 달도 안돼 1000대가 넘는 판매 기록을 세우며 '친환경차 인기 효과'를 입증했다.

21일 영국자동차공업협회(SMMT)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영국에서 작년 동기 대비 9.9% 증가한 1만 109대를 판매해 처음으로 월별 판매 순위 4위에 올랐다. 같은 달 기아는 2.6% 감소한 4만 132대를, 1만 43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5위를 기록했다.

현대차·기아가 영국에서 '톱5'에 함께 진입한 것은 올 6월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영국에서 꾸준한 판매 성장세를 보였다. 현대차는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8만 7151대, 9만 1808대를 현지에서 판매했고, 올해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한 4만 8778대의 누적 판매량 기록을 세웠다.

하반기 아이오닉5 등 신차 판매 효과까지 더하면 올해 처음으로 영국에서 연간 10만대 판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현대차의 선전을 이끈 투싼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3만대 이상 판매되는 등 차종별 판매 순위 10위권 내에 자리 잡고 있다. 투싼은 올해 상반기 누적 판매 1만 5496대를 넘어서면서 하반기를 포함하면 3만대 이상 판매는 거뜬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차 호재도 현대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 중인 캐스퍼 일렉트릭은 지난 5월 영국에서 출시된 첫 달에 1127대가 판매됐다.

기아는 올해 상반기 2.7% 증가한 6만 2005대의 판매량을 달성했다. 기아는 2023년 10만 7765대, 2024년 11만 2252대를 현지에서 판매하며 판매 순위 각각 7위와 8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기아의 최대 인기 차종은 스포티지다. 스포티지는 올해 상반기 누적 2만 3012대 판매로 차종별 판매 순위 2위를 거머쥐었다. 지난해에도 연간 판매량 4만 7163대로 판매량 2위에 올랐다.

현대차는 영국 판매 증가 이유로 법인-리스 판매 부분에서의 판매 확대를 꼽았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항공보안주간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 '오늘도 무사고' 현장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항공보안문화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경찰청이 공동 주관하는 '항공보안주간(Aviation Security Week)'을 맞아 마련됐다. 현장에서 진행된 '무사고 서약서 작성' 이벤트에는 총 3200여명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다짐했다. <TS 제공>

수출 줄고 생산 감소...美 관세에 車 산업 '비상'

상반기 대미 수출 16.5% 급감...완성차 생산량 1.6% 줄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로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충격' 우려가 수차례 드러났다.

상반기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 이상 줄어들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6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58억 6700만달러로 전년 동기(189억 9700만달러)보다 16.5% 급감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 수출액도 363억 6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줄었다.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량이 감소한 주원인은 미국이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미 자동차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관세 영향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관세 부과 이전인 3월 전년 동월 대비 10.8% 감소한 27억 8000만달러에서 4월 28억 9000만달러(-19.6%), 5월 25억 1600만달러(-27.1%), 6월 26억 9000만달러(-16.0%) 등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미국 내 완성차 판매 둔화와 높은 관세 부담이 겹치면서 수출이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수출 둔화는 생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1~6월 국

내 완성차 생산량은 211만 1104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줄어들었다.

반면 해외 공장 가동은 활발했다. 기업들이 관세 부과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생산보다 미국 등 해외 생산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1~5월 국내 완성차 업체의 해외 생산은 158만대로 작년보다 4.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완성차 수출은 친환경차 호조 덕에 6월 63억 4000만달러로 역대 6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하이브리드 수출은 26만 180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4% 늘었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역시 3만 2815대로 15.8% 증가했다.

친환경 차의 인기로 상반기는 버텼지만 대미 수출량이 급격히 줄어들며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완성차 업계에는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하반기 실적 부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시장 개척과 수출 피해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반기 국내 자동차 산업은 임단협 결렬에 따른 생산 차질 가능성,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과 소통하며 신시장 개척,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피해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수입차도 '친환경'에 꽃피다

상반기 10대 중 8대 친환경차 팔려...벤츠 E클래스 등 신차 판매 견인

2년 연속 뒷걸음질 치던 국내 수입차 시장이 올해 상반기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신차 출시와 친환경차 판매 증가가 시장 회복의 주요 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2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 승용차는 13만 8120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9% 늘었다. 2023년과 2024년 각각 4.4%, 2.9% 감소하며 침체를 겪었던 시장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성장세의 중심에는 친환경차가 있다.

상반기 판매된 수입차 10대 중 8대는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차로, 전체의 84.2%를 차지했다. 하이브리드는 33.2% 증가한 8만 3841대, 전기차

는 20.2% 증가한 3만 2420대를 기록했다.

반면 가솔린차는 2만 122대로 37.1% 줄었고, 디젤차도 1737대로 53.7% 감소하며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시장 활기를 이끈 또 다른 요인은 '신차 효과'다. 올해 상반기 KAIDA에 등록된 수입차 트림은 총 511개로 작년 상반기(460개)보다 9.9% 증가했다. 테슬라 모델Y, 벤츠 E클래스, BMW5 시리즈 등 신형 모델이 판매 상위권에 오르며 수요를 견인했다.

고가 차량의 선전도 눈에 띈다. 상반기 1억 5000만원 이상 차량은 전년 대비 55.9% 급증한 1만 7493대가 팔렸다. BMW, 벤

츠, 포르쉐가 시장을 주도해 초고가 차량 판매가 전체의 12.7%를 차지했다.

구매층의 변화도 있다. 개인 구매(8만 8090대) 중 40대 구매자가 3만 1135대(35.3%)로 가장 많았고, 30대(25.5%), 50대(22.5%)가 뒤를 이었다.

법인구매도 5만 30대로 18.6% 늘며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위축됐던 법인 수요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다양한 신차와 프로모션이 예정돼 있어 상반기보다 더 많은 판매량이 기대된다"며 "특히 친환경차 확대 흐름이 시장 전체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현대차·기아 '2025 레드 닷 어워드' 콘셉트 디자인 11관왕

현대차·기아는 "2025 레드 닷 어워드" 콘셉트 디자인 부문에서 최우수상 2개와 본상 9개 등 11관왕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레드 닷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매년 제품 디자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서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고 있다.

현대차는 미래 물류 시스템 '시티팻'과 '어반팻'

이 자율주행 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됐고, 기아의 'PV5 위켄더 콘셉트'는 자동차-모터사이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티팻과 어반팻은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둔 운송 솔루션으로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을 적용했다.

기아의 PV5 위켄더 콘셉트는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다목적 EV 밴이다. 실내-외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태양광 패널 등으로 자

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제네시스는 엑스 그란 쿠페와 엑스 그란 컨버터블, 엑스 그란 이퀘이터로 본상을 받았고 기아는 PV1-PV5-PV7 콘셉트와 EV2 콘셉트로 본상 4개를 수상했다.

현대차의 나노 모빌리티와 마이크로 모빌리티도 본상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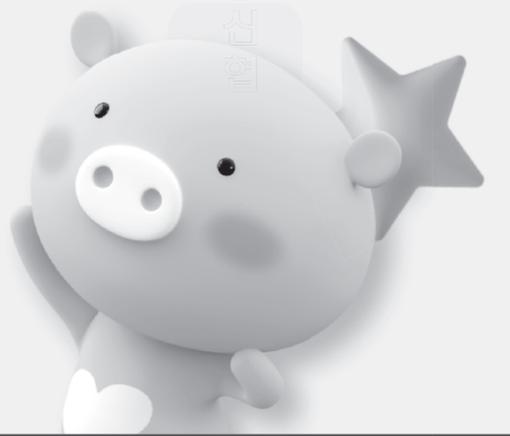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